

월정사 성보박물관 유물 도록 발간

통도사에 이어 두번째...162점 三寶로 분류 초보자 이해 쉽게 사진마다 설명 붙여



불교에서 운영중이거나 건립 중인 성보박물관은 유물관을 포함해서 현재 30곳에 이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이 많지 않고, 막대한 운영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99년 10월 13일 개관이래 두 차례의 학술 세미나와 특별전을 개최했고, 학술총서를 발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745호인 월인석보와 월정사 판만대장경, 국보 292호인 상원사동장경신본, 오대산 사적지 등을 수록했고, 승보편에는 강원 남부지역에서 활약한 근 현대 고승들의 진영과 한암 스님, 탄허 스님의 유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범종과 목재, 불연, 밀부 등 불교의식구들은 기타 유물편에 모았다.

이 중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에서 나온 사각수리향낭은 현존하는 자수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두 명의 아가 동자가 연꽃에 둘러싸여진 모습이 수놓여져 있다.

박물관 측은 "월정사에 전해오는 유물과 월정사 말사에서 이관되어온 유물들을 한 자리에 정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강원 남부지역 불교미술의 양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5만5천 원, 0338334-1817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현존하는 자수 가운데 최고(最古)의 것으로 추정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사각수리향낭.〉

올해 개관 3주년을 맞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최근 소장유물 400여 점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 160여 점을 담은 도록을 발간했다. 270여 쪽에 달하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유물 도록〉은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의 삼보를 기본 주제로 해 모두 162점의 유물에 대한 컬러 사진과 해설을

실었다. 사진을 싣고 개괄적 설명을 뒤에 따르는 대부분의 도록과 달리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해당 유물의 사진에 설명을 바로 단 것이 특징이다. 성보박물관이 소장유물 도록을 발간한 것은 지난 98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이어 두번째다.

불보편에는 1970년 허계보수 당시 발견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11점과 상원사 문수동자좌상에서 발견된 북장유물(보물 793호) 23점 등을 실었다. 법보편에는 경전과 사적기로 분류해 보물

감은사터 동탑 옥개석 일부 파손

풍화작용·복원후 구조결함, 원인 엿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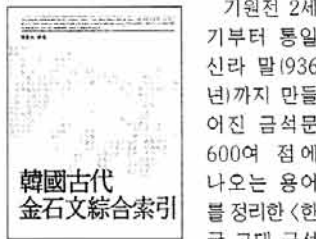


〈1층 옥개석 받침 이음새 부분이 떨어져 나간 감은사터 동탑 서쪽면 전경. (사진제공=한겨레신문)〉

국보 112호 경주 감은사터 동탑이 또 말썸이다. 지난 8일 탑의 1층 지붕돌(옥개석)의 받침돌 일부가 떨어져 나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에 대한 긴급 보존처리를 18일부터 24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층 지붕돌의 받침돌은 각각 4개의 조각들을 짜서 만든 것으로 5개 층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방향 지붕돌 아래 1-3층 받침돌의 이음새 부분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면서 V자 모양의 홈이 생겼다. 긴급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떨어져 나간 부분은 빗물의 영향으로 풍화 현상이 심하게 발생

했기 때문"이라며 "큰 덩어리 3개와 작은 파편들로 떨어져 나간 부재는 원상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난해에도 탑의 제1 아랫쪽 기단부 덮개석(갑석) 부분이 들려 올라가 문제가 됐던 것을 예로 들며 탑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는 "1000년 이상을 버텨온 돌이라 워낙 약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96년 해체복원 당시 기단부를 잡석들로 부실하게 채우다 보니 힘이 가운데로 쏠려 무거운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돌출부여서 몸체 하중의 영향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96년 당시 신재료를 쓰지 않고 기존 부재에 보강 처리를 한 돌이라 풍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풍화와 부식이 일차적 원인이라 해도 위, 아래 몸돌(탑신)이 함께 눌러주어야 되는 구조에서 받침돌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징조"라고 말했다.

BC2~AD10세기까지
금석문 600여점 색인 발간



韓國古代 金石文綜合索引

기원전 2세기부터 통일신라 말(936년)까지 만들어진 금석문 600여 점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한 〈한국 고대 금석문 종합색인〉(학연문화사)이 최근 발간됐다. 부산 외국어대 권덕영 교수가 8년여 준비 끝에 최근 완성한 색인집은 금석문에 나오는 1만4천개의 용어를 △인물 △지리 △직관(職官) △사찰 △탑 △상(像) △종 △비 △국가 △언호 △능묘 △건축물 △성서 △기문 △종족 △전적 △시문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실고 있어 연구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나나 순서로 한데 묶은 종합편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 3600여 항목에 달려 있는 각주는 이 색인집만의 특징이다. 해당 용어별로 각기 다른 판본문을 일일이 각주를 달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거나 축약된 용어는 원래 글자를 함께 수록했고, 대사, 국사, 선사사(寺)로만 표기된 것

도 그것이 지칭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실을 찾아내어 표제어로 함께 올려놓았다. 값 3만5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개설·서비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18일부터 홈페이지(www.nrip.go.kr)를 개설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개설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국내 유일의 종합적인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축적한 조사연구자료와 연구소 발간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한다.

올 초 발간한 〈고고학 사전〉과 〈문화유적발굴조사연보〉의 목록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고고학〉과 〈문화재〉는 강간호 이래 최근호까지의 모든 수록 내용을 볼 수 있다. 〈풍납토성〉과 〈무령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등 각종 조사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영화와 녹취 음향자료, 슬라이드 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도 서비스한다. 김봉건 소장은 "현대의 문화재 보존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관련 박사 3명, 석사 10명

올 상반기 각 대학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 마쳐

2002년 상반기 각 대학의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가 끝나면서 불교 관련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은 3명, 석사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학 분야에서 2명, 미술사 분야에서 1명이 박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는 불교학 관련이 6명, 미술사가 4명이다.

불교학 분야에서는 최동순(동국대 강사) 씨가 '선관(禪觀)사상의 변천과 정 연구-천태지관과 관련하여-'로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 학위를, 류승주 씨가 '원효의 유식사상 연구-심식론(心識論)과 변론론을 중심으로-'에서 나온 사각수리향낭은 현존하는 자수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두 명의 아가 동자가 연꽃에 둘러싸여진 모습이 수놓여져 있다.

박문관 측은 "월정사에 전해오는 유물과 월정사 말사에서 이관되어온 유물들을 한 자리에 정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강원 남부지역 불교미술의 양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5만5천 원, 0338334-1817

먼저 양식 문제를 보자.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은 신라 하대의 전통적 양식인 팔각당 형태의 승탑이 팔각원당형 건물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 연구관은 승탑의 기원을 팔각형 모양의 사리기에서 찾는다. 건물에서 따왔다면 몸돌(탑신)의 아랫부분에 받침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도 현존하는 신라 하대의 승탑에 하나같이 받침대가 들어있는데 주목한 결과다.

최동순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은 천태종과 선종의 교류를 중심으로 시대별 선관 사상(禪觀)이 변천하는 과정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천태종이 선종과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 교류 혹은 비판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류승주 씨는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원효의 불교관을 고찰했다. 원효의 유식사상을 여래장 사상과 유가유식 사상을 포함하는 광의의 유식사상으로 파악한 류 씨는 두 사상체계의 유사점

박사학위 논문

승탑, '사리기'에서 비롯 새 주장 천대·선종 교류로 선관사상 변천 규명 유식사상을 바탕 원효 불교관 고찰

'화엄교학의 성기 사상 연구'로 지은 스님이 '원각경'의 수행론 연구. 김유미 씨가 '팔각 원당형에 나타난 불타관 연구-한역 열반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고석훈 씨가 '진표, 진묵 이야기의 특질과 전승의 성격, 신명희 씨가 '고려시대 사리장엄구 연구', 강상해 씨가 '라 말여초 승탑 탑신 신장상 연구', 고경아 씨가 '신라 고승 양지 연구'로, 글렌 최 씨가 'A Study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Vipassana Practice and Psychotherapy in America-Focus on Mark Epstein's Therapeutic Methodology-'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다. 출생화(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씨는 '조선시대 산문체계를 통해 본 일주문 연구'로 명지대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 가운데서는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가 흥미롭다. 소 연구관은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승탑의 기원과 전래, 변천사, 양식을 밝힌 이 논문에서 기존 학계의 정설에 반하는 새로운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과 차이점을 원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논리로 양자를 화통시키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석사 학위 논문 중에서는 이전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다룬 두 논문이 관심이 간다.

태경 스님의 논문은 〈화엄경〉에서는 계(戒)나 율(律), 수행과 관련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다뤘다. 대승불교 경전에는 율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화엄경〉에는 계율에 대해서도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태경 스님은 말한다. 80권 〈화엄경〉에 나오는 계와 관련된 용어 280여 개의 용례를 중심으로 주석서들의 주석을 비교함으로써 〈화엄경〉 전체에 흐르는 계관(戒觀)을 파악하고 있다.

출생화 씨의 논문은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부속건물인 산문과 산문체계를 중심으로 일주문의 기원과 조성배경, 형식과 양식의 전개 등을 밝힌 논문이다. 일주문이 형성된 시기를 고려말로 산정한 출생화 씨는 선종을 상징하는 건물물로 조성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있다.

직원채용공고

1. 모집직종 및 인원

직종	모집인원	자격
사회복지사	2명	복지사 2급, 3급
경리사원	1명	경력직 1명
간호사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기기사	1명	2급
보일러기능사	1명	보일러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2급(제4류)

2. 제출 서류

- 가. 이력서 1통
- 나. 자기소개서 1통
- 다. 주민등록등본 1통
- 라. 자격증 사본 1통

3. 모집 기간

2002. 7. 1 ~ 7. 30

3. 연락처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85 사회복지법인성리원
- 전화 : (02) 743-0294 / Fax (02) 747-4866
- E-mail : sungla@sungla.or.kr
- Homepage : www.sungla.or.kr

사회복지법인 성리실버타운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 안내

-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력실, 바둑 게임실,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락처

02)743-0294, 011)9781-7301 Fax 02)747-4866

사회복지법인 성리실버타운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께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지맥·사무실·조상묘소 의 수맥·지자기·지진류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우물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쉬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방체 산후비탈 남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